

# 여수 웅천에 '생각키움 체험놀이터' 조성

암골못공원 30억 투입 리모델링 자연형 창의 놀이공간 탈바꿈 자가발전 자전거 등 시설 다채 "성장기 아이들 창의력 일깨워"

전라남도 여수시가 웅천동 암골못공원을 자연과 체험이 어우러진 창의적 놀이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웅천동 택지개발사업 당시 조성된 암골못공원을 자연 친화적이고 창의 놀이시설을 갖춘 '생각



여수시 웅천 암골못공원에 조성된 '생각키움 체험놀이터' 전경.

여수시 제공

키움 체험놀이터'로 리모델링해 완공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도시공원을 리모델링해 친환경 체험형 놀이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2023년 3월 실시설계 용역

이후 약 2년에 걸쳐 진행됐으며 총 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생각키움 체험놀이터'는 기존의 정형화된 놀이터와 달리 자연 지형을 최대한 보존한 친환경 설계와 아동의 창의력과

모험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놀이시설이 특징이다.

특히 △조합놀이대 △자가발전 자전거 △집라인 △트램펄린 △경사지 미끄럼틀 △해먹놀이기구 △모래놀이 △바다분수 등 어린이의 선호도가 높은 시설이 다수 조성돼 지역 아동들의 새로운 놀이공간으로 인기를 끌 전망이다.

또 고무칩 포장과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안내판 등으로 위험인자를 줄이고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공원 이용객 편의를 위한 산책로와 쉼터도 마련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암골못공원 내 체험 놀이터는 놀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무한한 사고력과 창의성을 일깨워 주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여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기자

## 전국한우협회 여수지부, 사회복지시설에 한우 78kg 후원

전라남도 여수시는 (사)전국한우협회 여수시지부가 가정의 달을 맞아 사회복지 시설에 전달해달라며 300만원 상당의 한우 78kg를 후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6일 시장실에서 열린 후원품 전달식에는 정기명 여수시장과 이정만 (사)전국한우협회 여수시지부장, 최상근 사무국장, 조영미 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후원은 한우 사육 농가들이 도축장에 출하할 때 1두당 일정액을 거둬내 조성한 한우자조금으로 마련됐다.

시는 노인,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12곳에 한우를 전달했다.

이정만 (사)전국한우협회 여수시지부장은 "앞으로도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공유하며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매년 변함없이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시는 (사)전국한우협회 여수시지부에 감사드립니다"며 "기부해주신 한우와 농가의 따뜻한 마음까지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사)전국한우협회여수시지부는 한우자조금을 통해 지난 2011년부터 15년째 사회복지시설에 한우를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지난 17일 여수시 (사)모두모아봉사대가 광림동 독거노인 집에서 집수리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 국동지구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 모집

전라남도 여수시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반을 구축하고자 '2025년 국동지구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민이 공동체를 형성해 마을문제를 찾고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지역의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재생 사업,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교동, 국동, 월호동 지역 내 5인 이상 주민모임 및 비영리 민간단체로, 규모는 10개 단체 내외다.

사업 내용에 따라 300만원부터 1000만원의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며, 신청 금액의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국동지구 현장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블로그 또는 여수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국동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061-642-0660) 또는 여수시 도시재생지원센터(061-659-5927)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이경기 기자

## 모두모아봉사대, 광림동서 집수리 봉사

전라남도 여수시 (사)모두모아봉사대가 지난 17일 광림동 독거노인 집을 방문해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봉사대 회원들은 도배, 싱크대 설치, 물건 정리 및 청소 등으로 어르신들의

주 공간을 쾌적하게 정돈했다.

(사)모두모아봉사대는 지역 취약계층 발굴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3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같이가치' 후원금으로도 도움을 전하고 있다.

박근영 모두모아봉사대회장은 "대원들의 노력으로 집안이 깨끗해져서 마음까지 개운하다"며 "환해진 집안처럼 어르신들이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준 광림동장은 "함께 봉사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동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있는지 구석구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 여수시립합창단, 오늘 '레퀴엠' 사전 해설 음악회

### 서형일 상임지휘자 취임 기념

여수시립합창단이 20일 오후 7시 전라남도 여수시 GS칼텍스 예술마루 소극장에서 '베르디-레퀴엠 사전 해설 음악회'를 개최한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음악회는 8년 만에 새롭게 위촉된 서형일(사진) 지휘자의 취임을 기념하며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작곡가 베르디의 걸작 '레퀴엠'을 청중들이 보다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도록 돕는 사전 해설 형식으로 진행된다.

서형일 상임지휘자는 이날 직접 강사로



나서 작곡가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 작품의 음악적 특징과 메시지를 청중의 눈높이에 맞춰 해설하고 여수시립합창단과 '레퀴엠'의 주요

곡을 연주하며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입장료는 전석 무료이며, 누리 소통망(SNS) 또는 전화로 사전 예약된 일부 좌석을 제외하고 공연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입장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립합창단(061-659-5681)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이경기 기자

## 묘도동 도독마을 방파제 '벽화로 탈바꿈'

이순신 장군·진린 도독 전투 벽화로 생생히 재현해 눈길



여수시 묘도동 도독마을의 방파제가 벽화로 재탄생했다.

여수시 제공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동 도독마을의 방파제가 벽화로 재탄생했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도독마을은 정유재란 당시 명나라 수군을 이끌고 조선 수군과 함께 왜군에 맞서 싸운 진린 도독 장군이 진을 친 곳이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해전의 배경이 됐던

마을 방파제가 벽화로 변신한 것이다. 마을 이름도 '도독'이라는 진린의 직함에서 비롯됐다.

묘도동은 이 같은 도독마을의 유래와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인근 조명연합수군테마관광지와 연계해 관광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지난 4월부터 벽화작업을 기획

했다. 마을 주민들도 단순 색칠을 돕는 등 힘을 보탰다.

약 150m에 이르는 벽화는 이순신 장군과 진린 도독이 연합해서 왜군과 싸우는 모습이 생생히 묘사됐다. 거북선과 판옥선, 조선과 명나라 연합수군의 항전 장면이 벽면에 가득하다.

묘도동은 이번 벽화가 볼거리 제공은 물론, 마을 주민들에게는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로 묘도동장은 "이순신 장군과 진린 도독의 발자취가 깃든 도독마을의 역사와 가치를 알리고 보존하고 싶었다"며 "이번 벽화사업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의 본보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여수=이경기 기자